

‘민속악 거점’ 역할 적극 수행

창극·민속음악 특성화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2024 주요 공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종현 원장

주요 사업 내용은 창극 및 민속음악 특성화를 통한 기관 경쟁력을 제고해 일상에서 누구나 누리는 국악 환경조성 및 저변 확대하고, 민속악 진흥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을 통한 관객 개발 및 공연 서비스 품질 개선 등으로, 창극과 민속음악의 특성화를 통해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대표 창극 작품을 제작하고, 공모를 통해 선발된 단체에 창극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립민속국악원은 올해 민속악의 거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남도민요 공연



민속악 축제



퐁갯 공연



화산무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은 민속악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3년 대표작품 ‘산전수전 토별가’를 부산원과 남도원에서 각각 2월과 3월에 공연할 예정이며, 어린이 대상 창의력 증진 작품을 11월에 예원당에서 선보이고, 공모를 통해 선발된 단체에게는 5월부터 6월까지 예원당과 예음헌에서 창극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 명인 및 명창을 위한 ‘꿈나무무대’를 예음헌에서 2월에 4회 개최하고, 민속악 관련 예술인과 단체를 초청하는 ‘민속악 축제’를 예원당에서 9월에 2회 개최하며, 전통 민속춤을 선보이는 ‘무용단 정기공연’을 예원당에서 6월에 1회 개최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소리꾼들에게 판소리 완창 기회를 제공하는 ‘소리 판’을 예음헌에서 연중 5회 진행하고,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과 사설집을 제작한다.

일상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악 환경을 조성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상설 및 기획 공연을 추진한다. 더불어 K-문화관광 거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며,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치유 체험프로그램과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국악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기획 공연으로는 ‘고백, 고백Go Back’, ‘날리는 국악무대’, ‘보요국악나들이’, ‘어린이날 기념공연’, ‘국악콘서트 다담’ 등이 있고, 상설 공연으로 광한부원 음악회가 있으며, 명절과 송년을 기념하는 공연으로는 ‘새해맞이 설 공연’, ‘추석 공연’, ‘송년 공연’이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극 제작 및 공연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덩덕쿵 국악놀이터도 열린다.

K-문화관광 거점 강화를 위해 해외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전라권 지역 순회 공연, 지역축제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전통예술 공연, 국제 교류 공연(일본, 프랑스, 호주, 필리핀, 몽골 등), 그리고 소속원 간 대표작품 순회 공연을 진행한다.

국악을 널리 퍼뜨리고 국악 향유층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국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국악치유 체험프로그램 국악 명상, 청소년을 위한 국악세상과 즐거운 국악산책, 그리고 중장년층을 위한 청출어람 국악실기 강좌가 제공되고, 민속악 진흥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전북지역의 민속예술을 조사하고 구술체록을 진행한다.

다양한 상설·기획 공연 추진 일상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악 환경 조성·저변 확대

K-문화관광 거점 강화 위해 해외·국내 유관기관과 협력

국악 교육·체험 프로그램 국악 향유층 확대 도모

무장애 전시 위한 해설 개발 국악에 대한 이해력 증진

공연 품질 향상시키기 위해 공연평가위원회 등 운영

또한, 시조 명인 정경태의 저술 ‘국악보’ 발간을 준비하고, 전시 해설을 통해 국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지역 민속예술 연구와 관련해 전북지역 민속예술 조사와 민속음악학술자료집 발간을 통해 기초 연구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전북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종목(27건)에 대한 작고 보유자 및 보존회 소장자료를 수집하고, 민속음악 학술자료집으로 시조 명인 정경태의 저서 ‘국악보’를 발간 준비 중이다.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양을 심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무장애 전시를 위한 해설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람객이 국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전시 해설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악 체험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교육 및 체험 사업에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와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공연 관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발권시스템과 티켓부스 환경을 개선하며, 안내원 운영을 통한 관람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악 공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평가위원회와 민간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속단체의 예술역량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관람객의 의견을 수렴해 공연 만족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기관 및 사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게시처와 공식 SNS 계정을 활용하여 공연 홍보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관객을 유치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신문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보도자료를 제작하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기관, 국악연주단, 상설공연 등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한다.

김종현 원장은 “2024년에도 국립민속국악원은 다양한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악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전통의 계승과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더 넓은 관객층에게 국악의 매력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